

책의 향취 그윽한 문화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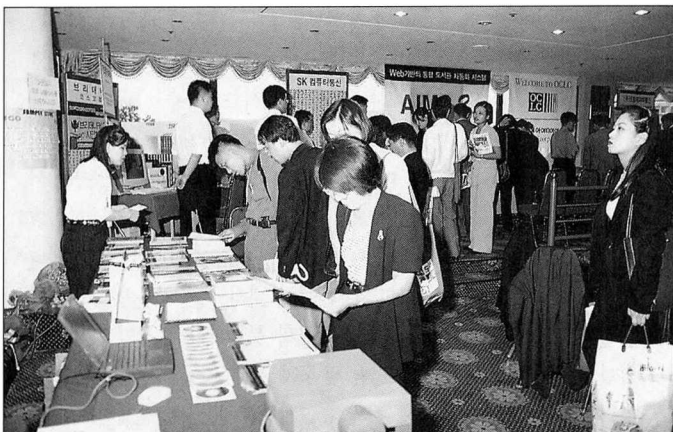
제36회 '전국도서관 대회' 이모저모

천년의 고도 경주에 자리한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도서관과 국가경제'를 주제로 열린 '제36회 전국도서관대회'는 도서관 위상제고에 대해 그 어느때보다 열띤 논의가 펼쳐진 장이었다. 도서관 전산화 및 각종 기자재를 전시한 '도서관 문화 관련 전시회' 개막으로 시작, 책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책의 역사 특별전', 우리 선조들의 문향을 느낄 수 있는 '책, 그리고 차와 향: 전통 글방문화의 재현',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 등의 행사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어모았다.

특히 '전통 글방문화의 재현' (표지사진)은



· 책의 역사 특별전.
책의 역사를 한눈에 알 수 있는 전시장. 무구정광다라니경 목판본자본, 고려대장경 영인본, 삼국사기, 고려사, 훈민정음, 각종 서지와 목판활자 등이 함께 전시되어 책을 통한 우리 문화의 유구한 정신을 살펴볼 수 있다.



· 독서문화상 및 도서관 홈페이지 경연대회 시상식.
독서문화상 대통령 표창은 김기준(새마을문고 제주도 지부회장)과 대구 새벗문고교수상했으며, 홈페이지 경연대회 대상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기술정보실이 받았다.



· 라운드테이블 1.
〈도서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이 진행되면서 종종 탄식이 흘러나왔다. 당장 눈앞에 닥친 구조조정의 칼날을 막을 마땅한 대책이 없어 많은 이들을 안타깝게 했다.



· 책, 그리고 차와 향.
녹차 향기 그윽한 가운데 선조들이 사용했던 문방구와 각종 도구들이 전시되어 우리 글방문화의 운치를 느낄 수 있다. 행사를 마련한 박희준씨가 직접 시연과 해설강의를 맡아 옛 문화의 향수를 더해줬다.

매월당 김시습이 금오산 자락에서 은둔생활하며 《금오신화》를 쓸 때의 모습을 복원하여 많은 사람의 눈길을 끌었다. 이 행사를 마련한 박희준(시인, 향기를찾는사람들 대표)씨는 "매월당의 독서 생활 속에 나타난 우리 향과 차 행사를 열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위기극복의 원천이 독서임을 새삼 강조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전시장을 찾은 사람들은 은은한 향기 배어나는 녹차를 마시며 옛 선비들의 문화적 향취를 만끽했다.

고구려호태왕비탁본 축본 등을 전시한 '책의 역사 특별전' 역시 많은 이의 발길을 잡았다. 또한 교보문고·삼성전자·한국브리태니카 등 28개 회사가 도서관 관련 각종 기기를 전시한 행사장에도 온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시업체들은 서지 운영시스템, 전자출판물, 도난방지 장비 등 자사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도서관의 현실을 진단하고 앞길을 구명하

는 각종 토론의 장도 곳곳에서 펼쳐졌다. 이 가운데 특히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끈 것은 라운드테이블 제1주제 '도서관에 불어닥친 구조조정 바람: 생존에 대한 위협인가 위상제고를 위한 기회인가'였다. 현재 도서관 관련 구조조정이 실행되고 있기에 관심의 초점이 모아질 수밖에 없었다. 사회자가

한 토론자에게 "현재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책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머뭇거림으로 대처했다. 토론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방청석에서는 잦은 한숨소리가 흘러나왔다.

김대통령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도서관 수준이 바로 국력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복무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그러나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을 위로하기에는 역부족인 듯싶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모인 4백여명의 관계자는 도서관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는 것을 굳게 믿는 듯했다.

— 경주·오완진 기자